생명 기도로 채운 부산연등축제

부산불교연합회, 릴레이 기도 회향

30일 연합 릴레이 기도 정진
구 · 군 불교聯, 단체 28팀 참여
부산불교대상 시상식도 열려
"마음 밝힌 기도 그대로 남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27일 송상현광장에서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을 회향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5월 27일 송상현광장에서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을 회향했다.

30일 간 진행한 기도를 회향하며 스님들은 "기도는 거룩한 불사이며 장엄등 조명이 꺼진 후에도 마음을 밝히는 빛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회향 후에도 기도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회장 경선 스님은 "코로나 19 극복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릴레이 기도는 부산 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빛으로 퍼져 나가는 거룩한 불사였다"며 "연등축제기간 동안 광장을 밝힌 빛과 스님들의 기도 음성은 불성을 깨우는 마중물이 되고, 장엄등 빛이 사라져도 시민들의 마음을 밝힌 빛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릴레이 기도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팀을 구성하고 매일 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정진이었다. 부산불교연합회에 소속된 구 · 군불교연합회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등 28개 팀이 구성되었고 매일 15여명이 동참해 기도를 이어갔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참가 수는 제한됐지만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유튜브로 중계해 함께하도록 이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BBATV)은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재 등 연합회 행사를 알리는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향식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약사여래 기도의식으로 다시 한 번 국운융창을 발원했고 발원문과 봉행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향을 맞아 '부산불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상은 BTN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가 수상했다. BTN불교TV염불공양회는 무보시 염불 시다림 봉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교 행사에서 육법공양으로 법회를 장엄해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BTN불교TV염불공양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영상 미디어 포교를 위해 불교TV에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옥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부총장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받았다. 상금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수상자 및 단체명을 모두 언급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박 회장은 "지역사회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봉사한 불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여러분의 활동이 귀감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회향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정사 및 연합회 스님들과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 설동근 총연합신도회 고문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 기원, 빛고을 장엄하다

5월 23일 축소 진행, 원력 모아


5월 23일 5.18민주광장서 불자들이 코로나 극복 약사여래기도를 하고 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2020빛고을관등회'가 코로나19의 철저한 준비 속에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5월 23일 5.18민주광장에서 '2020빛고을관등회 관등법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관등법회와 제등행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등법회만으로 축소 진행됐다.

행사에는 동현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 송광사 주지 현고 스님과 이용섭 시장, 장휘국 교육감,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5개 구청장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광주봉축행사였다. 광주 봉축기획단은 당초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제등행진, 대동한마당 등 빛고을 관등회 본행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2월부터 전국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도들의 참여행사인 어울림마당과 대동한마당이 취소되었고, 전통등전시회와 관등법회, 제등행진, 점등식 위주의 행사로 준비됐다.

행사를 불과 1주일 남기고 터진 이태원클럽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제등행진 또한 취소되어 이날 관등법회만 진행한 것이다.

행사가 축소되면서 이날은 특별히 현고 스님의 법문과 코로나19종식을 위한 약사여래기도가 봉행되어 힘든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동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환자와 생을 달리한 분들, 그리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간과 모든 생명이 다함께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전체 참가자가 다함께 약사여래 기도를 10여 분 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광사, 청소년 위한 연등 축제 '눈길'

5월 24일 '연등, 마음을 밝히다' 삼광 예능대회

부산 대표 천태종 사찰 삼광사가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삼광사는 '연등,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삼광 예능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5월 24일 경내에서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일환으로 '연등, 마음을 밝히다' 청소년 예능대회를 개최했다.

예능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댄스, 시화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초등학생 및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심사를 거쳐 그리기 및 시화 부문에 배규련 학생 외 5명, 글짓기는 도예린 학생 외 3명, 댄스 부문에는 박현민 외 3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상은 5월 30일 진행됐다. 대회서는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마술쇼, 장기자랑,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삼광사는 5월 24일 경내에서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일환으로 '연등, 마음을 밝히다' 청소년 예능대회를 개최했다.

삼광사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는 5월 28~30일 경내 일대에서 개최됐다. 연등콘서트와 연등 사진전, 연등 오감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부산불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불교문화체험으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군산사암聯, 봉축법요식 봉행

코로나사태로 연등행사 생략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5월 24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군산 수송공원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작법시연과 살풀이, 한량무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부처님오신날 공동집행위원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지역 기관장,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천상천하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며 "모든 사람이 훌륭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중생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마음"이라며 "부처님의 지혜를 자각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며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당당해지고 위대해지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빚에서 빛으로' 불교 '부실채권 소각' 보시행

지구촌공생회 · 전북봉축위 1000만원씩 전주시에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 공생회(이사장 월주)와 전북 봉축위원회(공동 위원장 성우, 진성)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기금 20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오른쪽 사진〉

5월 23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북 봉축위원회와 지구촌공생회를 대표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부실채권 소각기금을 전달했다.

금산사 종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성우 스님은 "빚으로 고통받는 전주시민들이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身 心 休
몸-마음-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모기간 2020년 6월 1일 부터 6월 22일 까지

공모주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대상 :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대 상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제출서류
• 공모참가신청서 / 프로그램 설명서 / 프로그램 워크북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2020 문체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5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반드시 제출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과 이메일 발송 모두 제출
• 제본물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불교상담개발원 / 공모 담당자 이해청 팀장
• 메일주소 - jabi7378@naver.com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구 분	수상금	선 정
최우수상	1,000,000원	2개

선정발표
2020년 6월 26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마음·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문의처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